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전통공예 교류전 개최

- 12.19.~2.10.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전통공예작가 100여 명의 교류전 개최
-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공예의 유사함과 현대적 시도를 통한 현재의 전통공예 발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와 학술대회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사단법인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일본 일반사단법인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2월 10일(월)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공예를 소개하는 ‘동아시아 국제교류전 in TOKYO 2024-2025’ 기획전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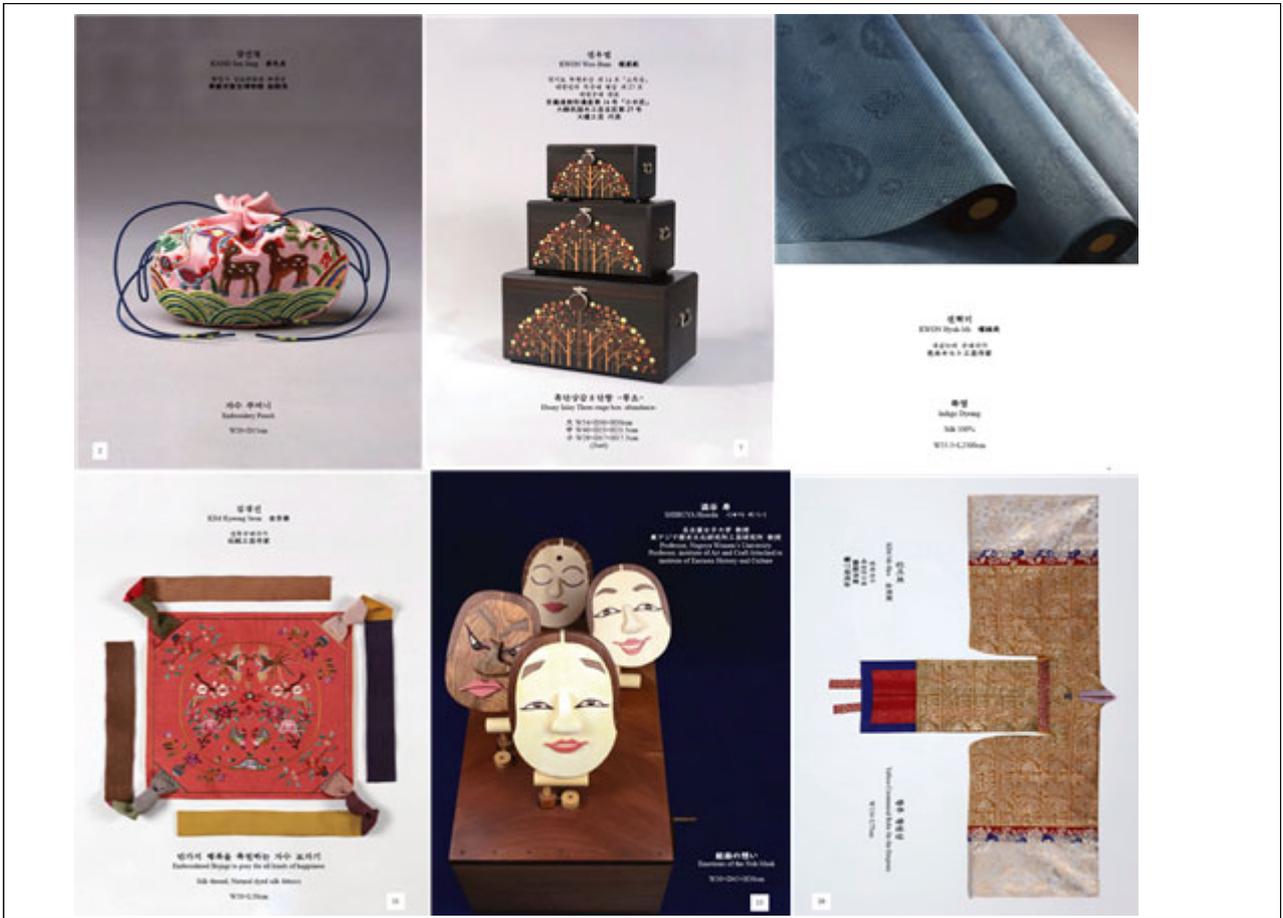
기획전 ‘동아시아 국제교류전 in TOKYO 2024-2025’전은 한국과 중국, 일본 각국의 전통 공예의 문화를 재인식하고 현대적으로 시도한 작품들을 통해 현재 전통 공예의 발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회이다.

전시회엔 학회 회원인 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대한민국 명장, 대학 교수 및 문하생 등 68명의 한국작가와, 일본과 중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35명(일본 25명, 중국 10명) 등 총 103명이 참여하였다. 전시 기간 중에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5명이 전통 공예의 기술과 실천, 검증과 고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예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교류하며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전통 공예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조명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관련 이미지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전시 작품(전시회 도록에서 발췌)

はじめに

日本の織物は、絹の特性を活かして、織み手の経験の豊かさ、繊細い機織、精緻高い芸術美など世界に類を見ない輝かしい歴史を築いてきた。歴代の工匠たちは時代ごとの新たな機織を開発し、それに適した技術と機織を造り出し、伝統美の美を伝えてきたのである。

今では世界のマーケットである豪華織の分野織物に力を入れ、その魅力を伝えるために、本プロジェクトでは日本の織物の魅力を広く紹介している。

1. 機織とは

織物の「織り」とは、たて糸とよこ糸を交互に通して、互いの糸に押し合いで織り込んでいくことで、美しい柄が生まれる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織物の「織り」とは糸が一つにまとめた糸(経糸)に通して織り込んでいくことで、美しい柄が生まれることである。

2. 機織

手織の織物は、道具を用いず手だけで織ることが可能であるが、複雑な織みや均一な織り目、伸縮の調節のため、角巻、糸巻、高巻などの織機を用いる。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 일부 발췌